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231호)

마이다스플러스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10년 05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1-06
펀드 규모	28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34%
환매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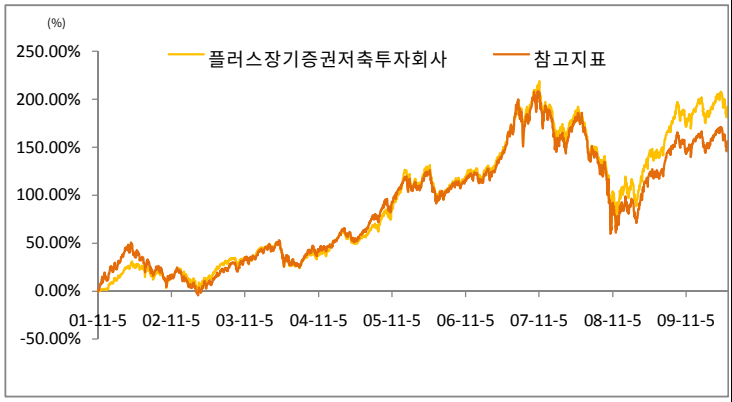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플러스장기증권투자회사	-4.50%	3.54%	6.64%	21.08%	192.41%
참고지표	-4.21%	2.52%	4.76%	14.49%	156.38%
초과수익률	-0.28%	1.02%	1.88%	6.59%	36.03%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1.05~2010.05.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5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4.50%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4.21%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낮았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광석 급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기 힘들다는 전망에 따라 큰 폭으로 하회한 철강업종의 편입비중을 줄이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개별종목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편입하였던 두산인프라코어, 효성 같은 일부 중형주의 수익률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지난 5월 주식시장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험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금융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공조를 약속하였지만, 원활한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유럽경기 침체가 미국과 중국 등에 전염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과도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시장의 경우 북한 리스크까지 제기되면서 급격한 원화약세와 이에 따른 달러표시 자금의 추가손실을 막기 위한 외국계 펀드의 투매 등이 겹치며 월 중 한때 종합주가지수는 12%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내수업종인 음식료, 섬유, 종이,전기가스, 유통, 제약 등의 업종과 실적이 양호하였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가 양호하였으며, 해외 금융주의 약세와 함께 동반하여 금융, 보험, 증권, 건설, 은행 등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선진국 소비약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등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 펀드에서 주식편입비율은 89%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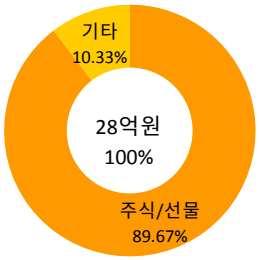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중 오리온, 엔씨소프트,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우리금융, 현대중공업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습니다. 지난달은 신세계, SK브로드벤드, LG전자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POSCO, LG디스플레이, 현대차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월 만기 옵션은 행사가격 240.0에 매도 하였으며 5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20.21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6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40.0를 매도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매도한 콜옵션에서 현재 이익을 보고 있으나 6월 만기일까지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0.05.31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0.03.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40.64%)

삼성전자	12.51
POSCO	5.38
현대차	3.91
하이닉스	3.80
KB금융	3.19
LG화학	2.63
현대건설	2.54
LG디스플레이	2.29
한국전력	2.24
기업은행	2.14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